

Anthony J. Tomasino 박사, 예수 이전의 유대교,

세션 4, 유대 민족에 대한 페르시아의 영향

© 2024 Tony Tomasino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토니 토마시노(Tony Tomasino)와 예수님 이전의 유대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세션입니다. 페르시아가 유대 민족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따라서 페르시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아무도 잘 모르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왕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인과 그들의 문화가 예 를 들어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남긴 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페르시아 문화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페르시아 양탄자를 얻었습니다. 페르시아 고양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 마음의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구 문화의 산물이며, 불행하게도 동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문화는 유대교의 발전과 기독교의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페르시아 문화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들은 페르시아 고양이입니다. 아, 하지만 페르시아인에 대해 그리스인들을 놀라게 한 것 중 하나는 그들이 페르시아인을 아마도 가장 많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절충적이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다양한 문화의 요소를 끌어와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사람들은 원래 말을 타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실제로 많은 건물이나 그런 종류의 건물을 짓지 않은 산간 지방에서 내려온 유목민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의 문화를 구축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발전하기 위해 어디에서 무엇을 합니까? 글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빌립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건축은 바빌로니아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이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정원입니다. 아, 사실, 정원을 뜻하는 후기 히브리어 단어 중 하나는 실제로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원사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이들은 유목민들이었죠, 그렇죠?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글썄요, 페르시아인들은 바빌론, 바빌론의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한 가지 더 나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볼 때 좋은 것을 빌려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아람어, 아람어의 사용. 이제 페르시아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인도-아리아어인 페르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을 때 페르시아어, 즉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람어보다 덜 유용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람어는 바빌로니아 제국 전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페르시아어를 배우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바빌로니아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스인들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훨씬 나중에 파르티아 시대, 사산 왕조 시대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일부 텍스트는 우리가 시리아어로 알고 있는 아람어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는 한동안 그들에게 살아있고 활동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들은 와인을 수입했습니다. 그들은 자라지도 않았고,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포도주는 페르시아인들의 고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디아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서 얻었지만 놀랍게도 포도주는 그들의 문화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이 이야기를 가볍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헤로도토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인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중요한 페르시아인들은 포도주에 완전히 취하기 전까지는 결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영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조로아스터교에는 포도주와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훨씬 더 그리스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어쨌든 다른 곳에서도 테스트되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인들은 포도주를 많이 마셨을 것입니다. 영수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바벨론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싶을 때마다 술에 취한다고 말했는데, 그게 몇 가지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결정을 내리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조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문화는 이 모든 다른 요소들로부터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종교.

이제 다리우스 시대 이전, 어쩌면 고레스 시대 이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페르시아 종교는 매우 다신교적인 종류의 신앙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들에게는 많은 신이 있었고, 그들의 신 중에는 미트라(Mithra)와 미트라(Mithra)도 포함되었습니다.

미트라교는 로마 제국 시대에 매우 중요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페르시아인들 사이에는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미트라는 그들의 신 중 하나였습니다. Uhura는 그들의 신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수많은 천신이나 반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양한 신들의 판테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들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거의 아무것도.

정말, 우리는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의 국교가 되기 이전의 페르시아인들의 종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선지자 조로아스터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거나 그가 차라투스트라라고 불리는 것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는 기원전 10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살았던 페르시아 선지자였습니다.

글쎄, 그게 범위인가?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그가 언제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전통은 1000개라고 말하고 일부 전통은 500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몇 안되는 것 중 하나는 그가 조로아스터교 경전의 기초인 Avesta, Gathas라고 불리는 부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이 쓰여진 방식, 언어, 페르시아어의 매우 고풍스러운 형태로 쓰여졌다는 사실이 그에게 귀속됩니다. 조로아스터교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만약 당신이 말했다면, 당신은 내가 말했듯이 차라투스트라라는 이름을 들었을 것이고, 니체에게서도 들었을 것이고 책은 차라투스트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체가 자신의 책에서 차라투스트라를 이러한 인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엄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창조한 인물, 그의 책에 등장하는 신화적 인물은 실제 역사적 인물인 차라투스트라나 조로아스터와 별로 유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사용한 이유는 우리가 조로아스터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그의 종교가 일종의 윤리적 유일신교, 즉 신에 대한 숭배가 행동의 윤리적 규범과 관련된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조로아스터가 이런 일을 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일찍 모세라는 사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그는 차라투스트라를 이용하여 선과 악에 대한 질문과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탐구하고 우리 의 도덕성을 우리의 종교와 그 종류에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것의. 어쨌든, 또 다른 요점은 니체의 작품에 나오는 차라투스트라와 매우 다른 사람이었던 실제 선지자 조로아스터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조로아스터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가르쳤던 한 분의 선한 신이 있었고, 그는 아후라 마즈다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아후라는 물론 이란의 전통적인 신 중 하나의 이름이다. Mazda는 지혜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위대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는 또한 Angra Mainyu라는 이름의 악령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거의 반신과 같았으며 항상 끊임없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앙그라 마이뉴는 모든 악, 모든 불행, 모든 나쁜 행위의 근원입니다.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는 모두 좋습니다. 오직 좋은 것은 Ahura Mazda에서만 나옵니다. 모든 좋은 것, 모든 진리, 모든 빛, 모든 은혜, 모든 평화.

좋아요. 그래서 이 둘은 영원한 갈등 속에 있지만 영원한 갈등은 아닙니다. 조로아스터교에 따르면 결국 앙그라 마이뉴는 불못에서 멸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 같네요.

괜찮은. 조로아스터교의 초기 형태는 우리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Gathas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윤리적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생명 보존의 중요성과 다른 생명체에 대한 존중을 매우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실성과 거짓말과 거짓을 매우 강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모든 이원론이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 빛과 어둠 등이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조로아스터교의 초기 형태는 우리가 가타스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실제로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어떤 것이든 다른 종교에 대한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은 약간의 소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미스터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지어 에스라 시대나 페르시아 제국 시대 사람들의 시대에 유대교가 무엇인지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여전히 이러한 흐름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문화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직도 굳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의 조로아스터교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어느 것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볍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로아스터교가 언제 페르시아의 공식 종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마을에 다리우스와 다리우스가 반응할 무렵에는 그렇게 되었을 것 같다., 그는 사람들이 악마를 숭배하는 것을 발견하고 Ahura Mazda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그들의 악마를 파괴하는 데 그를 돕는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조로아스터교보다 조금 더 편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최근 개종한 사람의 열심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문화적 접촉에 대한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말장난이지만, 국가가 서로 충돌하거나 접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명심해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약 200년 동안 페르시아인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유대교는 그 당시 바빌론에서 계속되었고, 그 이후로도 수백 년 동안 페르시아에서 지속되었으며, 그 기간 내내 그곳에서는 페르시아인의 지배와 우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것이 유대 문화와 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는 한 문화가 다른 문화와 충돌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것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거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만약 당신이 매우 지배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매우 지배적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들은 동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제 증조할아버지가 이탈리아에서 오셨어요. 그는 일종의 이탈리아 동네에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탈리아어를 말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그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우리는 미국 문화에 꽤 완전히 동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문화가 다른 문화와

긴밀하게 접촉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때로는 문화적 요소가 교류되기도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 둘 다 일종의 풍요로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일은 교양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의해 교양을 받은 한 사람에 대해 매우 매력적이거나 매우 강력하거나 설득력 있는 것이 있을 때 일어날 것입니다. 속담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이 그리스인들을 정복한 후 그들은 그들의 포로들에게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이제 로마인들은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그리스 문화를 너무나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채택한 것 중 일부와 거부한 것 중 일부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항상 더 강력한 국가가 항상 다른 국가의 문화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도 작동합니다. 따라서 어떤 것들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의 종교적 신념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매우 나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글썄, 당신은 유대 신앙이 오염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세서 등에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미디안 족속 등과 접촉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오염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신을 숭배하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은 이 이교 신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유대교가 다른 종교의 종교적 전통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지, 아니면 배교를 초래할 뿐인지에 대해 갖고 있고 정당화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진리를 계시하기로 선택하신 어떤 방식으로든 그의 백성에게 진리를 계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원하시면 이교도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드로가 모세에게 리더십 기술과 그와 관련된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미디안의 신앙이 모세의 초기 신앙 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형성했는지조차 모릅니다.

이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발람은 제사장이자 이교도였으며 선지자였습니다. 이교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당나귀를 키웠고 그 당나귀는 발람에게 물론 보이지 않는 천사 같은 것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발람은 메시아의 도래에 관해 매우 강력한 예언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 이방인을 사용하셨고, 또한 자신의 백성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 당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신학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이 좀 더 불확실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이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줄 수 있는지 아시나요? 그러나 그리스 철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많은 부분을 형성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믿고 있는 기독교 신학의 대부분의 아버지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깊이 그리고 당당하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학의 많은 부분을 형성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 철학이 기독교 신학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좌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이교도 근원에서 나온 것인지 깨닫지 못하더라도, 아,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기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표면 아래를 조금 긁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교도를 포함하여 자신이 원하는 어떤 출처든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고 때로는 그러한 목소리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일반적으로 유대교에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많은 조로아스터교 신앙이 훨씬 나중에 발전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이전과는 반대로 유대교와 함께 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언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친구약 중간기에 유대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종교적 영향에 관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문화적 맥락, 콘택트의 종교적 측면을 살펴보기 전에 페르시아의 유대인 지배가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일 중 하나는 신권의 명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 말기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으며, 우리는 왕이 없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에게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총독이 있었는데, 총독은 일반적으로 원주민이었지만 반드시 유대인 원주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는 이제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매우 빈번하게 그 지역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가 대제사장이었다고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는 그의 역할에 어떤 명성이 붙어 있었습니다. 말라기서에서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가 백성들의 많은 문제를 제사장 직분에 두고, 그 시점에서 제사장 직분을 주요 문제로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는 다시 제사장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의식을 행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제들은 그다지 교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지배 시대에는 사제가 선생, 교사라는 개념이 매우 철저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중간기 전반에 걸쳐, 그리고 사해 두루마리에서도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 나간 것입니다. 나는 여행이 더욱 안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더욱 안전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국가의 한 부분, 제국의 한 부분, 제국의 다른 부분으로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사업과 무역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었고, 아마도 아람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람어를 말하고 주변 사람들도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연합을 이루고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 말기에도 제국의 일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에 대한 큰 편견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유대인들이 현재 지중해 세계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퀴즈가 있습니다. 예수 시대에 유대인은 아마도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민족 집단을 구성했을 것입니다. 이것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는 대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좋아요? 그리스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도 한 번에 한두 명의 아이를 갖는 그리스 풍습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이 그들이 분개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한 명과 부딪치지 않고는 돌아설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제국에는 유대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로마제국만을 세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파르티아에는 유대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유대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과 그 정복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물론 언어 문제죠. 나는 이미 아람어를 링구아 프랑카로 채택한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나는 또한 이미 히브리어의 분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어떻게 지식인의 언어이자 민족주의적인 언어가 되었는지, 동시에 서민, 땅의 사람들의 언어이자 일종의 저속한 언어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성서의 마지막 책들에서도 페르시아어 외래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 관한 책은 히브리어와 페르시아어의 아람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후기 히브리어, 사해 두루마리의 히브리어, 미슈나의 히브리어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래어가 더 많이 추가되는 것을 봅니다. 라즈, 또 하나.

신비. 따라서 이것은 채택되어 실제로 유대인의 표현 수단과 유대 문화, 심지어는 그들의 철학, 즉 법과 의식의 표준화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의 일부가 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다리우스가 법의 표준화를 어떻게 요구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겠습니까? 글썄요,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이 밀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리우스로부터, 나중에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로부터 밀어붙여 법을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그들의 경전을 정경화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지중해 세계의 다른 어떤 민족도 유대인들이 경전의 정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경전 의 정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페르시아 정책 중 일부에서 영감을 받아 그러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를 증언하는 것 중 하나가 엘레판틴 편지(Elephantine Letters)라고 불리는 이 편지들이다. 저는 여기서 몇 분 후에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특히 유월절 파피루스라는 텍스트는 의식의 중앙 집중화와 표준화에 대한 개념이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중요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레판틴 파피루스.

이것은 그들 중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곳곳이 부서지고 찢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엘레판틴은 이집트의 유대인 군사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파피루스는 엘레판티네에서 발견되었으며, 연대는 대략 기원전 495년에서 기원전 405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날짜가 적혀 있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연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언제 쓰여졌는지 알려 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 문서가 작성될 무렵에 이 군사 식민지를 설립했습니다.

더 이상 군사 식민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일반인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서 중 상당수는 유대인입니다. 이곳에는 유대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시리아인과 이집트 원주민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던 아히카르 이야기라고 불리는 이야기가 포함됩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여기에 사본이 있었어요.

앞서 외경에 있는 토빗서를 언급했는데, 그 책은 귀신에게서 구출된 유대인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토빗서에 따르면 토빗은 아히카르의 사촌이었다. Ahikar는 원래 시리아의 영웅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입양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 Elephantine 파피루스 중에서 특히 중요한 텍스트 중 일부가 있습니다. 결혼 계약.

그렇다면 결혼 계약이 그토록 흥미롭고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한 가지는 그들이 우리에게 결혼 관습에 대해 많은 통찰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혼전 계약이 현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뇨, 그렇지 않아요.

도 각 당사자의 모든 책임과 이혼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명시한 결혼 계약인 케투바 (ketuvah) 없이 결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엘레판틴 파피루스에서 밝혀지는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혼이 매우 흔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여러 번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혼 문제를 언급하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쪽. 그리고 우리는 때로 이 글을 읽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술궂은 말씀이 아니었나요?'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끔찍한 관행이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어렸을 때 결혼해서 가족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그런 다음 조금 더 늙어가면 그들의 아내도 조금 더 늙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와 이혼하고 새 사람을 얻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정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와 결혼하고 그 여자와 함께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응.

그래서 그것은 그 말씀을 읽어야 할 빛입니다. 아, 이 불쌍한 여자는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배우자와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는 생각의 빛이 아닙니다.. 아뇨, 어쨌든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충격적인 또 다른 사실은 이 군사 식민지에서 통혼이 매우 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 이름을 가진 부모가 있고 그들의 손자는 이교도 이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관습 중

일부를 채택하고 있다는 혼합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모든 코끼리 파피루스, 특히 일부 결혼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제, 유월절 파피루스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그의 영역 전체에 유대인 관습을 표준화하려는 다리우스 2세의 열망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피루스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축하하는 방법을 코끼리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하다.

여기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을 지시하는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거의 우스꽝스럽기는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우스꽝스럽지는 않습니다. 바커스에게 보내는 청원서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총독이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는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권위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말하면 그는 거기에 어떤 종류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군사 식민지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집트의 유대인들은 이집트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동물을 희생으로 바쳤습니다.

음, 그들이 염소를 희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신전 중 하나는 이집트 염소 신에게 바쳐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성전의 제사장들이 넘어가서 유대 성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총독은 다소 곤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그는 그들이 예배할 장소를 갖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그리고 신명기 개혁과 요시아의 개혁에 따르면, 예루살렘 외에는 어떤 곳에서도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이 작은 상황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엘레판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다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 곳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곡물을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은 문이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는 문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지만 동물 희생은 예루살렘에서만 행해졌던 두 개의 다른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거기서 해결한 일종의 타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목할 만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걸쳐 유대교에 표준화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메일 시스템을 통해 그들은 제국 전체에 걸쳐 표준화된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 영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유대교, 즉 구약의 야훼 종교와 신약의 유대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눈에 띄는 것 중 일부는 천사와 악마에 대한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천사가 있지만 신약에 나오는 천사와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악마. 우리는 마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신약에서 마귀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구약성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악마와 악마 소유. 그런데 구약성경에는 귀신이 나옵니다.

그들은 균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들림에 대한 개념은 구약성경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물론, 우리 신약 신앙의 핵심인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신구약 중간기의 특정 유대인 신앙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후에 미쉬나와 탈무드의 글에서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유대인들 사이의 신앙 조항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따라서 다음은 몇 가지 차이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점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 중 일부는 구약성경 신앙의 궤적이며, 그 자연적인 궤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조로아스터교와의 접촉을 통해 영감을 받거나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조로아스터교와 유대교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조로아스터교도 선하고 궁극적인 신은 한 분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한 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조로아스터교에 따르면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한 종류는 오늘날의 다른 많은 종교와 구별되는 점이지만 유대교와도 좋은 공통점을 제공합니다. 이제, 언제 조로아스터교가 유일신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면 유일신론이라 할지라도. 사악한 신인 앙그라 마이뉴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유일신론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유일신교의 하나로 여길 것입니다.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조로아스터교도 아후라 마즈다가 도덕의 원천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설교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어떤 그리스 신도 유대인의 신이 자기 백성에게 이르기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한 일이 없었느니라. 기껏해야 그리스 신들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신들은 그들의 건전한 도덕으로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로아스터교에 따르면 아후라 마즈다는 모든 선함의 근원이자 모든 선함의 모델이다. 그래서 이것은 조로아스터교와 유대교의 또 다른 접점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진실과 거짓, 빛과 어둠 사이에 강한 대조, 날카로운 대조를 그렸습니다. 물론 구약의 많은 본문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 음영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제 옳고 그름이 있고, 진실과 거짓이 있고, 선과 악이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 신앙, 야훼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는 조로아스터교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조로아스터교의 가르침과 실제로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문제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훨씬 나중에 바빌론에서,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에서, 특히 파르티아와 사산 왕조 시대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원론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조로아스터교가 유일한 진정한 이원론적 종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조로아스터교가 얼마나 이원론적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이원론을 말할 때 의미하는 바는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서로 갈등 속에 갇혀 있고 그것이 거짓 갈등이 아닌 실제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마귀는 기본적으로 꼭두각시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마귀를 사용하여 온갖 나쁜 짓을 하고 계시며, 그 갈등은 실체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일종의 가짜 싸움에 가깝습니다. 음, 이원론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원론은 서로 충돌하는 힘이 있으며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순수 이원론은 두 개의 동등한 반대 세력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의 순수한 형태이고, 저는 조로아스터교가 이런 식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앙그라 마이뉴, 악신, 악신, 아후라 마즈다가 권력 등에서 동등한 존재로 여겨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후라 마즈다는 결국 그를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George Burns가 신과 악마를 연기한 할리우드 영화, 오 갓(Oh God) 영화 중 하나를 생각나게 합니다. 둘 다 동등한 것 같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이원론입니다. 즉 철저한 이원론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원론적인 종교를 갖기 위해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원론은 구약성서의 주요 초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아니,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면에서,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할 이유들로 인해 일종의 고의적으로 억압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신약성경에서는 이원론이 신약성서 종교의 주요 특징이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 마귀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며 찾아다니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의 영인 악마들은 우리 영혼을 대적하여 우리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원론적인 종교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누가 승리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그 이원론적인 부분을 기꺼이 견딜 것입니다.

구약성서에서 고대 세계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전투 신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성서에서 때때로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전투 신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대 근동에서 A&E는 고대 근동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고 신은 악한 신을 물리침으로써 자신의 직위를 얻습니다.

대부분의 신화에서 그것은 일종의 바다 괴물입니다. 바빌로니아의 위대한 신 마르둑은 신들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티아맛을 물리쳐야 합니다. 구약성서에 많이 등장하는 바알이 최고신이 되기 위해서는 로단이라는 동료를 물리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혼, 이러한 갈등은 이러한 종교 신화의 기초가 됩니다. 성서 이전의 이스라엘은 이런 종류의 전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때때로 그들은 머리를 조금씩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암시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것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에는 로단(Lothan)이라는 이름과 어원적으로 동일한 리워야단(Leviathan)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는 시편 74:13과 14, 시편 27편에 등장하며, 욥기 26:12의 라합과 동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텍스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리바이어던이 일종의 역사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사 시대에 한때 신의 경쟁자로 여겨졌던 신화 속 인물은 이제 단순히 또 다른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구불구불한 강과 이런 모든 것을 갖춘 이집트를 의인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이 되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했다는 생각은 구약성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전투 신화의 일부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74편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정복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투 신화는 일종의 예시로 그려졌습니다. 누군가가 헤라클레스만큼 강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헤라클레스를 믿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예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이런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욥기 41장에서 리워야단은 기본적으로 악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어라는 인물을 통해 이제 역사화되고 자연화된 위대한 전투 신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갈등이 다시 발생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천사들과 이스라엘의 후원자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교 국가들의 천사 후원자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 10장에 나오지만 다른 성서 중간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다니엘 10장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회복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내가 얼마 전에 오려고 했으나 페르시아 왕자가 나와 싸우고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올 수 없었다. 그러자 대왕 미가엘이 와서 그 왕자와 싸웠습니다. 그것이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진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천사 미카엘과 페르시아의 수호천사 사이의 투쟁. 그리고 그는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이제 그리스의 왕자가 오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 뒤에도 천사 같은 왕자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갈등과 전쟁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 모든 사업에 대해 어디서 알아낸 걸까요? 나는 앞서 사탄의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구약성서에 여러 번 나타나는 사탄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약성서 본문에서 사탄은 고유한 이름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사탄은 구약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신약에서는 고유한 이름입니다.

좋아요, 일반적으로 제목입니다. 사탄은 단순히 대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는 종종 다른 사람을 고소한 사람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누군가를 기소할 때 우리는 그를 기소하는 변호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검사가 증인에게 오소리를 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오소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식으로 법원 시스템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자신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쾌한 종류의 은밀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누군가를 기소하는 경우, 때로는 그 사람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매우 불쾌한 방식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사탄에 대한 언급을 보게 됩니다. 여러 번 이것은 인간의 적을 가리킨다. 사무엘상 29장, 열왕기상 11장, 시편 109장에서 사탄은 분명히 인간의 대적입니다.

누군가와 물리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그를 법정에 끌고 가서 불쾌한 짓을 하려고 누군가를 상대로 온 사람. 아시다시피, 한 텍스트에는 적과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즉, 이 사람이 법정에 끌려간 것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22장 22절에서 한 천사가 선지자 발람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반대하는 이 천사가 사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는 악한가?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악마가 아닙니다. 발람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러 가는 동안 그는 발람을 반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는 이 용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용법이 나옵니다.

그러나 욥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 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 은 무슨 뜻인가요? 어떤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부 성경 번역판에서는 그 사탄을 대문자 S로 번역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정관사인 사탄이 있고 그것은 적수로 번역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거슬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적? 내 느낌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얇은 얼음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일종의 검찰 변호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의 관리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임무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사탄아, 네가 거기서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내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을 조사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 욥은 어떻습니까? 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말합니다. 자기가 선한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이 그를 너무 많이 축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축복을 빼앗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이것이 바로 고대 세계에서 검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의심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기꺼이 육체적인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욥기에 나오는 사탄은 신약의 마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신약성서의 악마를 예표합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주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자세히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도. 스가랴 1장과 2장.

다시 한번, 우리는 사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비난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을 선지자가 본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에게 온갖 더러운 일을 했다고 비난하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엘은 사탄을 변호하며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클이 그곳에서 일종의 변호인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일종의 깔끔한 이미지입니다. 네. 역대상 21.1. 이것은 구약에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로 사용되었음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다윗을 유혹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진술입니다. 이 본문은 분명히 페르시아 시대에 기록되었으며 아마도 페르시아 시대보다 훨씬 더 먼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사무엘하 24장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고 인구 조사를 하라는 유혹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은 인구 조사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24장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유혹하셨다고 나옵니다. 자, 그것은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어려운 이유는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역대상은 다윗을 유혹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도록 유혹한 사람이 사탄이었다고 역대상이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일종의 수정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가 검사라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어떻게 마귀가 되는가? 글썄요, 조로아스터교에서는 히라마즈다가 앙그라 마이 뉴(Angra Mainyu)라는 사악한 친구와 끊임없는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 사람은 매우 강력하고 강하며 사악한 사람입니다.

앙그라 마이뉴는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는 거짓의 아버지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친숙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신약성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두머리 악마 아래에는 그의 일을 하는 악령 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에 따르면 이것은 마치 군대처럼 조직되어 있습니다. 군대처럼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다양한 영혼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는 조로아스터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의 계층 구조를 가정합니다.

결국 우리는 Hiramazda가 Angra Mainyu와 그의 추종자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마귀와 그의 모든 악한 추종자들이 불뿔에 던져지는 요한계시록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조로아스터교에서도 매우 친숙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것이 먼저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는 이미 사탄을 하나님의 반대자, 하나님의 백성의 반대자로 이해하는 궤도에 들어섰습니까? 신구약 중간기 이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중간기와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시대에 우리는 이것이 훨씬 더 두드러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 유대인들이 악마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되는 별도의 영적 존재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 신을 믿지 않고도 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보십시오,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한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다른 영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다신교의 형태에 빠지지 않고 이런 종류의 이원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 전체 과정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구약에서 천사들은 일종의 작은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천사 호스트에 대해 듣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회의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비록 이것이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지만요. 반면에 유대교의 중간기에는 천사들이 훨씬 더 두드러졌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천사들에게 이름을 붙인 것을 본 것은 다니엘서에서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니엘서가 페르시아 시대에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구약성서에서보다 이러한 역할을 일종의 하나님의 사절로 받아들입니다. 천사는 개인입니다.

그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천사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에녹서와 같은 본문에서 이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에녹¹서는 천사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천사론이 매우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생각은 유대교, 신약성서 시대, 랍비 시대 등으로 깊이 이어졌습니다. 천사에는 다양한 계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성서에서 그런 내용을 조금 보았습니다. 나는 여호수아가 나가기 전에 천사를 만나서 "너도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원수냐?"라고 말하는 구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천사들이 다른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볼 수 있지만 많이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중간기 유대교에 이르게 되면 그들은 모두 순위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전문화를 얻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책임 등에 대해 매우 명시적인 설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조로아스터교의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의 추종자들과 매우 유사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관련되었는지가 문제입니다.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유일한 신으로서 하나님의 영혼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는 주님 이외의 영들이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발전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신성한 존재가 아닌 영이 있다는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악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서는 귀신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귀신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계급에 대한 개념, 마귀 소유에 대한 개념, 심지어는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개념도 구약성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성서에서 귀신의 역할은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에서 발견되는 귀신의 역할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쁜 바람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재난을 야기합니다. 그들은 땅 사이의 영역에 숨어 있고, 그곳의 폐허를 배회합니다.

그러므로 고대 세계에서는 영에 대한 믿음이 보편적이었습니다. 모두는 우리가 때때로 부르는 영혼, 악마를 믿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종교에서는 많은 경우 이 악마들이 신의 자손이라고 믿어졌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죽은 자의 영이라고 믿었습니다. 제물로 제대로 속죄하지 못한 죽은 자의 영은 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악마는 사람들이 사는 땅과 신들이 사는 하늘 사이의 영역에 거주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정령들입니다. 신약성서에서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는 귀신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마귀의 영역이었습니다.

악마가 질병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실제로 인간이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성서에서 귀신이라는 주제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고대 사람들이 악귀를 신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작은 신이지만 신이었습니다.

구약성서의 주요 주제, 그들이 확립하고자 하는 주요 사상은 오직 한 분의 신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알잖아? 구약성서에는 신약성서의 마귀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라는 단어를 읽을 때 그것이 신약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됩니다. 구약성서에는 귀신처럼 보이는 다양한 영들이 많이 있는데, 신명기 32장에 언급된 폭풍 귀신처럼 보이는 샤딴(Shadim)입니다.

샤림은 레위기 17장과 이사야 34장에 나오는 염소 악마인 것 같습니다. 릴리스(Lilith), 밤노파. 이제 이사야 34장입니다.

Azazel은 털이 많은 염소 악마일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악마를 지칭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수치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 동물을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악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악귀들은 광야 지역에 사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배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숭배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기서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들을 숭배하기 위해 광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지만 유혹자로 간주되지는 않았습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악마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악마는 앙그라 마이뉴의 하수인입니다. 그들은 그의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괜찮은. 악마에게 이름이 있다는 개념이 신약성경에도 나오나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응.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네 이름이 무엇이나? 그리고 우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개인적인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신약성서에서는 새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지역 신들에 대한 숭배를 용인하는 것과 악귀 숭배를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크세르크세스가 어떻게 악귀 숭배를 파괴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른 힘과 이러한 힘의 서로 다른 특징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신은 신이다.

악마는 악마입니다. 조로아스터교에 따르면 악마는 신이 아니다. 그렇다면 중간기 시대의 악마에 대한 관심은 조로아스터교와의 접촉을 통해 장려되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상에 악령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영, 악한 의도를 가진 영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정신은 단지 혼란스럽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임무와 임무가 어떤 의미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영혼입니다.

따라서 신약성서의 악마주의가 나타났다가 존재한다는 개념, 또는 적어도 조로아스터교의 이러한 개념 중 일부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개념은 꽤

그렇습니다. 이제 죽음 이후의 삶.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마지막 사례이고,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성서 학자들이 사용한 고전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구약성서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 이웃들을 완전히 매료시켰던 아이디어이자 주제이기 때문에 다소 놀라운 일입니다. 내 말은, 이집트인들은 사후 파라오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 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일반 남성인 노동자들은 죽은 뒤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피라미드의 그늘에 묻히고 싶어했습니다. 물론 중후대 왕국에서는 서민들이 죽어서도 살아남기 위해 미라화되기도 했다. 여리고와 같은 가나안 도시에서는 죽은 사람을 문자 그대로 집 바닥 아래에 묻어 죽은 후에도 영혼을 계속 돌볼 수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죽은 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무덤에 신주를 부을 수 있도록 먹이 공급관이 장착된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에 폭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구약성서를 읽었지만 거의 아무것도 읽지 않았습니다.

글쎄, 거의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뭔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종종 반신으로 여겼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이 신적인 존재라는 생각은 꽤 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성서의 일부 본문에서 왕인 사울이 엔도르의 마녀에게 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일으키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통해 이러한 모습을 살짝 엿볼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이 나타나자 엔도르의 마녀는 겁에 질려 소리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그녀는 내가 땅에서 일어나는 신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영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이라는 사상은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주된 주제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오직 한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립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는데도 모든 사람이 죽은 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대해 그들이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신이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먹이를 주는 일. 나는 그것에 대해 이미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야기 대부분에서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주제를 고의적으로 피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구약이 끝날 때까지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부활에 관해 말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 이미지는 개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데 사용됩니다. 개인이 죽음에서 살아남았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은 구약성서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마지막 책이 될 수도 있는 다니엘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개념은 구약성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올(Sheol)이라는 장소에 대해 듣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구약성서에는 죽은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신약성서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생각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스올에서 그들의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우리는 부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말한 마카베오 1서를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당신의 희망은 당신이 죽은 후에도 누군가가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마카베오서, 의인들이 다시 생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무덤에 누워 썩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신약 시대까지 계속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신약시대에 죽은 자의 부활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매우 강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중 부활, 모든 사람, 선한 사람의 부활, 행복한 영생으로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쁜 사람들의 부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신앙은 내세에 대한 유대인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자,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이것은 학자들이 유대교에 대한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조로아스터교 문헌에 따르면 조로아스터교인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 매우 정교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인들은 불못을, 죽은 자들과 선한 의인들이 불못을 통과한다고 말합니다. 의인들은 이 불못을 통과하면 정결함을 받습니다.

그들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준비됩니다. 악한 자들은 이 불못을 지날 때에 다 타버리느니라. 그래서 그 이미지는 어떤 면에서는 요한계시록과 신약성서와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미지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유대교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나요, 아니면 서로 영향을 준 경우였나요? 그래서 제가 말하려는 것은 물론 조로아스터교가 전도서에서 이미 발전하고 있던 노선을 따라 유대인의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도서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가 올라가고 동물의 영혼이 내려가는 이야기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말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그것에 대해 일종의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신약성서의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서에 대한 집착,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집착은 조로아스터교와의 그러한 접촉에 의해 조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부활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구약성서의 이미지가 이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미지는 어딘가에서 나왔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이전에도 유대 백성들 사이에 그러한 사상이 이미 스며들고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 것은 유대인들이 그러한 노선을 따라 생각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지만,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조로아스터교에서 유래하여 유대교에 의해 채택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페르시아의 영향에 대한 생각을 남겨두겠지만, 유대인과 페르시아인 사이의 접촉은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과 교차 수정의 기회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들의 신에 관해 뭔가를 배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가 이웃의 종교에 대해 배우는 것이 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을 숭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 배우는 것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토니 토마시노(Tony Tomasino)와 예수님 이전의 유대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유대 민족에 대한 페르시아의 영향입니다.